

研究者の時間壓迫感에 따른 情報探索行態에 관한 研究 *

A Study of Information Searching Behaviors Caused by Time pressure of Researchers

홍기철(Ki-Churl Hong) **

목 차

- | | |
|---------------------------|---------------------------|
| 1. 서론 | 4. 1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에 대한 분석 |
| 1. 1 연구의 필요성 | 4. 2 주요 이용자료에 대한 분석 |
| 1. 2 연구의 목적 | 4. 3 정보원의 유형에 대한 분석 |
| 1. 3 연구의 범위 | 5. 연구자의 시간압박감과 정보탐색행태의 관계 |
| 1. 4 용어의 정의 | 5. 1 자료수집사용시간의 분석 |
| 2. 이론적 배경 | 5. 2 탐색전략수립시간의 분석 |
| 2. 1 정보량의 급증과 정보수집시간 부족 | 5. 3 정보탐색방법의 분석 |
| 2. 2 연구시간압박과 정보추구행태 | 5. 4 정보탐색정도의 분석 |
| 2. 3 선행연구의 개관 | 5. 5 자료실이용빈도의 분석 |
| 3. 연구방법 | 5. 6 정보탐색행태의 검증 |
| 3. 1 가설의 설정 | 6. 결론 |
| 3. 2 자료의 분석방법 | |
| 4. 연구자의 시간압박감과 정보추구인식의 관계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기관에 소속된 전임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의 정도에 따라 정보탐색행태에 특징적 차이를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결론을 요약하면,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의 정도에 따라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성중에서 정확성, 재현성, 다양성에 대하여 중요시하는 정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이용자료중에서는 학술지, 단행본, 연구보고서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정보원의 유형에서는 기록정보원과 인간정보원 모두에서 중요시하는 정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연구자들은 연구수행과정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에 따라 자료수집사용시간, 탐색전략수립시간, 정보탐색방법, 정보탐색정도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ifference of information searching behaviours consist of information pursuit cognition and searching character by time pressure of researchers.

The major findings and result by time pressure of researcher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erms of information retrieval systems, according to the time pressure,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call, precision and diversity. In terms of main used material,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 book, a research report, and a journal. In terms of resource type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both record and human resource.

Also, in terms of searching behaviours, there is a difference to spend time for information collection and information searching strategy, and to decide information searching method and degree of searching.

본 논문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국회도서관 기획감사담당관
접수일자 1997년 8월 30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시간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활동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은 연구를 직업으로 하는 전임연구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므로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에서 시간을 최소한으로 투입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려 들것이다.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간을 최적으로 배분하는 문제는 연구자 개개인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연구기관의 자료실을 비롯한 정보봉사기관들도 연구자들이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정보봉사기관의 주요 이용자인 연구자들은 연구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연구기관에 전임으로 소속된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연구는 연구보고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구시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연구자 자신의 의사에 따른 자유연구이더라도 그 연구에 한없이 시간을 투입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연구시간의 제한은 연구자들에게 한정된 시간 내에 연

구를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지만, 반면에 연구자로 하여금 자신의 연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할 것이다.

지금까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자의 정보이용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연구자들의 학력, 경력, 성별 등 개인적 특성에 따른 행태분석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정보탐색행태는 그들의 개인적 특성에서만 연유하는 것은 아니고 연구기간, 연구유형, 연구기관의 특징 등 다른 환경 요인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기관에 소속된 전임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의 정도에 따라 정보탐색행태에 특징적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의 정도에 따라 재현성, 최신성, 정확성, 다양성 등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힌다.

둘째,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의 정도에 따라 학술지, 연구

보고서, 단행본, 학위논문 등 주요 이용자료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힌다.

셋째,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의 정도에 따라 기록정보원과 인간정보원 등 정보원의 유형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힌다.

넷째, 연구자들이 자료수집에 사용하는 시간과 탐색전략수립에 소비하는 시간이 그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밝힌다.

다섯째, 연구자들이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 정보를 탐색하는 정도, 자료실을 이용하는 빈도가 그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밝힌다.

1.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전임연구자들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기관은 독립연구기관과 기업체 부설연구기관이며 대학이나 개인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연구자들의 정보탐색행태를 분석하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 연구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전임연구자들의 정보탐색행태를 나타내는 정보추구인식과 정보탐색특성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의 정도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를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한다. 이를 위해 정보추구인식에 대하여는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 주요 이용자료, 정보원의 유형에 대한 중요도 인식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하고, 정보탐색특성은 자료수집사용시간, 탐색전략수립시간, 정보탐색방법, 정보탐색정도, 자료실이용빈도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1.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압박감의 정도 :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서 받는 시간적 압박의 정도로서 여기서는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거의 받지 않는 연구자들을 압박감도 1의 집단, 연구에서 시간 압박감을 약간 받는 연구자들을 압박감도 2의 집단,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상당히 받는 연구자들을 압박감도 3의 집단,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매우 심하게 받는 연구자들을 압박감도 4의 집단으로 하여 조사대상자를 모두 4개 집단으로 구분한다.

정보탐색행태 : 연구자들의 정보탐색과 관련된 행위나 태도로 여기서는 이를 정보추구인식과 정보탐색특성으로 구분한다.

정보추구인식 : 연구자들이 정보에 관련된 사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정보검

색시스템의 효율, 주요 이용자료, 정보원의 유형에 대하여 중요시하는 정도를 정보추구인식으로 한다

정보탐색특성 : 연구자들이 정보를 탐색하는데 나타내는 특징적 성질로서 여기서는 자료수집사용시간, 탐색전략수립시간, 정보탐색방법, 정보탐색정도, 자료실이용빈도를 정보탐색특성의 측정 요소로 한다.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 : 정보검색시스템에 대한 효율을 규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정보검색시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나타나는가 하는 재현성, 얼마나 최신정보가 나타나는가 하는 최신성, 얼마나 정확한 정보가 나타나는가 하는 정확성,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나타나는가 하는 다양성의 4가지를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로 한다.

정보탐색정도 : 연구자들이 정보를 탐색할 때 어느 정도까지 탐색하는가 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로 구분한다. 원하는 정보가 나올 때까지 탐색을 계속한다. 원하는 특정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오면 탐색을 중단한다. 3-5회 정도 탐색을 실시하고 중단한다. 1-2회 정도 탐색을 실시하고 중단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량의 급증과 정보수집시간 부족

롯카(Lotka 1926, 317-326)는 이미 1926년에 과학자들의 생산성에 대하여 n편의 논문을 생산하는 사람은 $1/n^2$ 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이를 과학논문 생산성에 대한 역자승의 법칙 또는 간단히 제시자의 이름을 따서 롯카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이 법칙은 과학자의 수가 증가한다해도 생산되는 과학논문은 그리 급속히 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이에 비하여 드솔라프라이스(De Solla Price 1964, 1011-1018)는 현대에 들어 논문의 생산이 증가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공동연구 때문이라고 하면서 많은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일수록 논문의 생산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연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급증하는 공동연구를 고려하는 한편, 학문분야가 과거에 비해 훨씬 복잡해지고 세분화된 점을 고려할 때 정보량의 증가에 대하여 롯카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다해도 정보량의 급증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정보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연구자들의 정보이용에 매우 큰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연구자들은 정보량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구를 위한 정보수집에 투입되는 시간을 정보량의 증가만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도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연구자는 정보량이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연구에 투입되는 시간을 무제한으로 증가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정보수집에 일정한 시간밖에 투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오늘날에는 이런 정보량의 급증에 따른 시간적 제약뿐만 아니라 학문의 전문화와 세분화로 인하여 관련정보가 여러 영역에 분산되어 연구자가 필요정보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브래포드(Bradford 1953, 200)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논문게제수가 많은 순서로 학술지를 배열해 보면 학술지는 핵심영역과 주변영역으로 구분되고, 핵심영역과 주변영역 사이에서 같은 양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는 학술지 수는 $1 : n : n^2 \dots$ 의 비율이 된다고 한다. 브래포드의 분산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핵심영역 학술지에서 입수하지 못한다면 정보탐색범위를 주변영역의 학술지로 계속 넓혀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부담을 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즉 연구자가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살펴보아야 할 학술지에 브래포드의 분산법칙에 적용해 보면 학술지의 수가 $1 : 1 + n : 1 + n + n^2 \dots$ 으로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연구자가 핵심영역 학술지에서 자신의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면 이를 입수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이런 정보량의 증가와 정보의 분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연구자의 정보이용에 영향을 미친다. 본(Bourne 1965, 11-35)은 연구자가 처해있는 상태나 심리가 정보이용요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그 요인으로 탐색시간, 부적합 자료량, 탐색결과의 제공형태, 이용자의 능력, 연구습관, 사용언어의 특수성,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식, 시스템이용의 편리성 등을 제시한바 있다. 라인(Line 1969 1-19)은 연구자의 정보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구환경, 연구유형, 학문분야, 연구영역, 연구자의 유형, 연구자의 연령과 학력 등 개인적 속성과 심리적 속성이라고 주장하였다.

2. 2 연구의 시간압박감과 정보추구행태

도서관을 비롯한 정보봉사기관은 봉사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그 방법을 모색해왔다. 정보봉사업무의 효율을 추구하는 시각은 크게 정보시스템의 측면에서 정보검색의 효율 평가, 이용자의 측면에서 이용만족도를 기준으로 하는 적합성 판정, 경영관리의 측면에서 비용효과 분석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보봉사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어느 하나의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보시스템과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적 효율을 판단하는 복합적이며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연구자는 연구

시간의 부족으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연구에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많은 정보에 대한 관심보다는 보다 정확한 정보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Howard 1982, 315-327) 또한 연구자들은 시간부족으로 인하여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만큼 정보수집을 위한 충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은철 1991, 37).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를 위하여 현재 바로 이용할 수 없는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비롯한 정보제공기관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을 찾게 된다. 그러나 연구시간이 부족하면 정보제공기관에서 원하는 만큼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거나, 개개의 자료제공자와 접촉하는데 곤란을 받게 되어 정보를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입수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Knapp and Atkinson 1980, 48-50).

2.3 선행연구의 개관

지금까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이용자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도서관 이용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이용자들의 지위, 학력, 탐색 목적 등 개인적 특성을 다룬 연구,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지식, 경험, 이용빈도 등 경험적 특성을 다룬 연구, 이용자의 기대요인, 탐색동기 등 심리적 특성을 다룬 연

구들로 계속되고 있다.

연구자들의 정보이용은 개인적 특성에 따른 특징을 보일 수도 있지만 연구자들이 처해있는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연구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구시간에 대한 문제는 연구자의 정보추구인식이나 정보탐색특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으며 연구자들의 정보접근 장애요소를 언급하는 가운데 시간부족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들이 약간 있을 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인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과 정보탐색행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연구자 또는 도서관 이용자의 시간부족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첸(Chen 1974, 272-280)은 보스턴 지역의 물리학자 339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이용행동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물리학자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로 공식 정보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들이 이용하는 공식출판물은 몇몇 학술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리학자들은 대규모 중앙도서관보다는 학과소속의 자료실을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요원인은 이용의 불필요, 시간의 부족, 원거리 이용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그들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주요이유는 특정정보의 탐색, 연구의 계속적 유지, 자료의 개략적 탐색 등의 순서로 나

타나고 있다하였다.

첸의 연구의 주안점은 물리학자들이 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왜 도서관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사실은 물리학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은 도서관의 위치와 이용에 소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연구자들의 시간부족은 정보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할 것이다.

피델과 소겔(Fidel and Soergel 1983, 163-180)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탐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접속시간, 단위시간당 명령어 수, 탐색계획수립 소요시간, 탐색어문, 시스템상의 특수기능 활용정도, 탐색전략의 다양성, 환류기능 등 7개 요인을 들고 있다.

피델과 소겔의 연구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탐색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것이므로 연구자들의 시간압박감이 온라인 정보탐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탐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한 것 가운데 시간에 관련된 요소가 두 가지나 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연구자들의 연구시간부족

은 정보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그(Haag 1985, 214-220)는 기존의 선행문헌을 조사하여 연구자의 연구환경에서 정보유용성을 제한하는 14개의 연구저해요인¹⁾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정보시스템의 빈약, 도서관 직원의 능력부족과 서비스의 불충분, 필요정보의 부족 등도 정보유용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하그는 문헌정보학의 발전상에도 불구하고 정보유용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으므로 도서관을 비롯한 정보시스템의 관련자들의 가장 중요한 전문가적 임무는 정보와 이용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그는 연구자의 연구유용성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은 정보량의 증가, 정보 이동매체의 증가, 정보검색시스템의 복잡성 등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런 이유로 연구자들은 정보를 취급하는데 점점 많은 시간이 들게 된다고 하여 연구자의 시간부족은 정보유용성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곧 연구자의 시간부족은 정보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서머스 등(Summers, Matheson, and Conry 1983, 75-85)은 캐나다의 브리티시

1) 출판의 지연, 수준이하 정보, 정보의 과잉, 정보의 분산, 비인쇄자료의 낮은 이용, 서지기록 표준화의 미비, 용어의 혼란, 정보의 독점적 태도, 정보존 재의 독단적 판단, 탐색전략의 부적절성, 외국어 능력부족, 시간부족, 지역 적 고립, 도서관의 정보입수 지연 등 14개요인

콜롬비아주의 교육관련 종사자 1,078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이용행태 및 정보이용의 장애요인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정보원을 접근성에 따라 최근접의 전통적인 정보원, 비교적 접근이 어려운 공식적인 인쇄정보원, 조직화된 개인상호작용의 3개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교육관련종사자들의 개인적 특성 중에서 직위, 정보전달의 차원, 정보에 대한 태도가 정보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정보에 내재된 11개의 특징²⁾중에서 교육관련종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권위가 있고 정확하며 객관성이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정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관련종사자들은 제시된 정보이용의 장애요인³⁾을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고 하였다.

서머스 등의 연구는 교육관련종사자들의 개인적 특성 중에서 정보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용특징에 따른 정보원의 구분, 정보에 내재된 특징에 대한 중요성 인식 등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교육에 관련된 종사자들은 교육에 대한 정보이용의 장애요소로 제시된 10개요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정보를 찾거나 또는 이를 읽는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연구자들

에게도 시간부족이 정보이용의 가장 큰 애로점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은철(1991)은 대학의 철학과, 사회학과, 물리학과 교수들을 각각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대표하는 연구자로 선정하여 연구자들이 정보를 접근하는데 직면하는 장애요소와 이들이 인식하는 장애요소의 심각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연구장애요소로 모두 43건을 추출하여 분석하고 그 중에서 22건을 연구의 변수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변수의 장애요소에 대한 심각도는 장애의 발생빈도, 장애의 영향, 장애의 추세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연구자들의 연구를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하여는 장애심각도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한다 하였다.

이은철의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시간부족을 정보접근 장애요소의 변수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연구자에게서 기인하는 정보접근의 장애요소를 설명하면서 시간부족을 맨 처음에 언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시간부족은 연구자의 정보접근장애요소로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연구자의 시간부족은 정보접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다.

2) 제시된 특징은 권위성·정확성·객관성, 내용의 다양성, 문제해결의 가능성, 손쉬운 접근성, 이해의 편리성, 내용의 최신성, 사용의 편리성, 관점의 다양성, 접근경로의 편리성, 접근의 다양성, 경제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정보탐색시간의 부족, 정보수집의 곤란, 자료갱신의 곤란, 내용의 이해곤란, 정보원 선택의 곤란, 재정적 경비문제, 정보탐색지원의 부족, 정보제작의 곤란, 보고서 내용의 상이점, ERIC 색인의 사용법 등 10개요인.

최상기(1993)는 과학기술분야 온라인 탐색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한 연구에서 최근에 나타난 이용자의 정보탐색형태의 뚜렷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탐색결과인 검색문헌수량이 많아지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용자가 검색문헌이 많아지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는 탐색결과에 대하여 그것을 읽는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탐색결과의 적합성 평가에서도 많은 시간적, 정신적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상기의 연구는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연구로 이용자들이 검색문헌이 많아지는 것을 왜 기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온라인탐색에서 많은 문헌의 검색을 싫어하는 이유로 시간적, 정신적 노력이 많이 든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연구자들의 시간부족은 정보수집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애덤스와 봉크(Adams and Bonk 1995, 116-131)는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전자매체로 수록된 정보에 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대학교수들이 전자매체정보에 접근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부족, 이용훈련부족, 이용자 금부족, 시간부족 등을 들고 있다.

애덤스와 봉크의 연구에서 대학교수들은 전자매체정보에 접근하는데 시간부족

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부족보다 더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연구자들의 시간부족은 정보접근과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가설의 설정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의 정도에 따라 그들의 정보탐색특성을 나타내는 정보추구인식과 정보탐색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본 연구의 주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의 정도에 따라 시간압박감을 거의 받지 않는 집단, 시간압박감을 약간 받는 집단, 시간압박감을 상당히 받는 집단, 시간압박감을 매우 심하게 받는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된 각 연구자들의 집단은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 주요 이용자료, 정보원의 유형 등에 대한 정보추구인식이 서로 다를 것이다. 또한 각 집단은 자료수집사용시간, 탐색전략수립시간, 정보탐색방법, 정보탐색정도, 자료실이용빈도 등에 대한 정보탐색특성이 서로 다를 것이다.

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과 정보추구인식의 관계를 구체화한 세분가설을 기술하

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을 나타내는 재현성, 최신성, 정확성, 다양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중요도 인식은 그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 압박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연구자들의 주요 이용자료인 학술지, 연구보고서, 단행본,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자들의 중요도 인식은 그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 압박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정보원의 유형을 나타내는 기록정보원과 인간정보원에 대한 연구

자들의 중요도 인식은 그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 압박감과 정보탐색특성의 관계를 구체화한 세분가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4. 연구자들이 자료수집에 사용하는 시간은 그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연구자들이 탐색전략수립에 소비하는 시간은 그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의 정도에 따라

<표 1> 변인과 측정요소

구 분	변 인	측 정 요 소
독립변인	시간압박감의 정도	압박감도 1의 집단 압박감도 2의 집단 압박감도 3의 집단 압박감도 4의 집단
종속변인	정보검색시스템 효율의 중요도 인식	재현성 최신성 정확성 다양성
	주요 이용자료의 중요도 인식	학술지 연구보고서 단행본 학위논문
	정보원 유형의 중요도 인식	기록정보원 인간정보원
	정보탐색특성	자료수집사용시간 탐색전략수립시간 정보탐색방법 정보탐색정도 자료실이용빈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연구자들의 정보탐색방법은 그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7. 연구자들의 정보탐색정도는 그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8. 연구자들의 자료실이용빈도는 그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2 자료의 분석방법

수집된 질문지 188매를 대상으로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연구자(이하 압박감도 1의 집단, N=28),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약간 받는 연구자(이하 압박감도 2의 집단, N=61),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상당히 받는 연구자(이하 압박감도 3의 집단, N=67),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매우 심하게 받는 연구자(이하 압박감도 4의 집단, N=32)로 구분하여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의 정도에 따라 정보추구인식과 정보탐색특성에서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변인들은 다음과 같이 한다.<표 1>

4. 연구자의 시간압박감과 정보추구인식의 관계

4. 1 시간압박감과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에 대한 분석

4. 1. 1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에 대한 전체 중요도 인식

조사대상자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과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에 대한 관계에서 정보검색시스템 효율에 대한 전체 중요도 인식은 정확성, 재현성, 최신성, 다양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1의 집단에 속한 조사대상자들의 정보검색시스템 효율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재현성, 최신성, 다양성, 정확성의 순서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는 재현성, 정확성, 최신성, 다양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3의 집단에 속한 조사대상자들의 정보검색시스템 효율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정확성, 최신성, 재현성, 다양성의 순서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도 정확성, 최신성, 재현성, 다양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표 2>

이것은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지 않을 때는 많은 정보와 최신정보에 관심을 기울여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 중에서 재현성과 최신성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을 때는 많은 자료를 수집한다해도 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

〈표 2〉 시간압박감과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에 대한 중요도 인식

구 분	압박감도1	압박감도2	압박감도3	압박감도4	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재현성	4.75	4.43	4.03	3.75	4.22
최신성	4.57	4.20	4.22	3.81	4.20
정확성	4.00	4.25	4.55	4.81	4.41
다양성	4.43	3.74	3.85	3.28	3.79

중에서 정확성을 보다 중요시하게 된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거의 받지 않을 때는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 중에서 다양성도 비교적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4. 1. 2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별 중요도 인식

4. 1. 2. 1 재현성에 대한 분석

조사대상자들의 시간압박감과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에 대한 관계에서 재현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전체평균이 4.22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재현성을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현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압박감도 1의 집단과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는 평균이 각각 4.75와 4.43으로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압박감도 3의 집단과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 재현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평균은 각각 4.03과 3.75로 전체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지 않을 때는 정보검색시스템에서 많은 정보가 나타나는 재현성을 중요시하고,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을 때는 정보검색시스템에서 많은 정보가 나타나는 재현성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4. 1. 2. 2 최신성에 대한 분석

조사대상자들의 시간압박감과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에 대한 관계에서 최신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전체평균이 4.20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최신성을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 중에서 세 번째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신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압박감도 1의 집단에서 평균이 4.57로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압박감도 2의 집단과 압박감도 3의 집단에서 최신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평균이 각각 4.20과 4.22로 나타나 전체평균과 같거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 최신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평균은

3.81로 전체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지 않을 때는 정보검색시스템에서 얼마나 최신자료가 나타나는가 하는 최신성을 비교적 중요시하지만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을 때는 최신성을 비교적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4. 1. 2. 3 정확성에 대한 분석

조사대상자들의 시간압박감과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에 대한 관계에서 정확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전체평균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정확성을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에서 첫 번째로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확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압박감도 1의 집단과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 평균은 각각 4.00과 4.25로 전체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압박감도 3과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 정확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평균은 각각 4.55와 4.81로 전체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앞의 재현성에 대한 분석과 반대로 나타난 것으로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을수록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에서 정확성을 중시하고, 그렇지 않을수록 재현성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4. 1. 2. 4 다양성에 대한 분석

조사대상자들의 시간압박감과 정보검색

시스템의 효율에 대한 관계에서 다양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전체평균이 3.79로 가장 낮게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이 다양성을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양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평균은 압박감도 1의 집단에서 평균 4.43으로 전체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는 평균이 3.74로 전체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압박감도 3의 집단에서 다양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평균이 3.85로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는 중요도 인식의 평균은 3.28로 전체평균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연구자들은 전체적으로 다양성 별로 중요시하지 않지만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지 않을 때는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에서 다양성을 비교적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4. 1. 3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에 대한 중요도 인식 검증

재현성의 중요도 인식에 대한 각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자승법을 이용한 검증 결과에서는 검증 통계치 χ^2 값이 39.296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유도 12(df=12)일 때 검증치를 나타내는 유의도(p)가 $p < 0.000$ 으로 나타나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최신성의 중요도 인식에 대한 각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자승법

을 이용한 검증 결과에서는 검증 통계치 χ^2 값이 17.438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df=12$ 일 때 검증치를 나타내는 유의도가 $p<0.134$ 이므로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정확성의 중요도 인식에 대한 각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자승법을 이용한 검증 결과에서는 검증 통계치 χ^2 값이 41.604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df=12$ 일 때 검증치를 나타내는 유의도가 $p<0.000$ 이므로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다양성의 중요도 인식에 대한 각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자승법을 이용한 검증 결과에서는 검증 통계치 χ^2 값이 30.318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df=12$ 일 때 검증치를 나타내는 유의도가 $p<0.002$ 이므로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표 3〉

4. 2 시간압박감과 주요 이용자료에 대한

분석

4. 2. 1 주요이용자료에 대한 전체 중요도 인식

조사대상자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과 주요 이용자료에 대한 관계에서 주요 이용자료에 대한 전체 중요도 인식은 학술지, 연구보고서, 단행본, 학위논문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1의 집단에 속한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이용자료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학술지, 단행본, 연구보고서, 학위논문의 순서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도 학술지, 연구보고서, 단행본, 학위논문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3의 집단에 속한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이용자료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학술지, 연구보고서, 단행본, 학위논문의 순서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는 연구보고서,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표 4〉

이것은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받는 시간 압박감과 관계없이 주요 이용자료 중에서

〈표 3〉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에 대한 중요도 인식 검증

변 인	χ^2 값	자유도 (df)	유의도 (p)
재현성	39.296	12	0.000
최신성	17.438	12	0.134
정확성	41.604	12	0.000
다양성	30.318	12	0.002

<표 4> 시간압박감과 주요이용자료에 대한 중요도 인식

구 분	압박감도1	압박감도2	압박감도3	압박감도4	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학술지	4.39	3.85	4.01	4.56	4.11
연구보고서	3.50	3.79	4.00	4.63	3.96
단행본	3.79	3.69	3.36	3.31	3.52
학위논문	3.07	3.31	3.31	3.38	3.29

학술지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연구보고서는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을수록 중요시하고, 반대로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지 않을수록 단행본을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학위논문은 연구자들이 전체 주요이용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지 않는 자료이지만,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심하게 받을 때는 상대적으로 학위논문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2. 2 주요이용자료별 중요도 인식

4. 2. 2. 1 학술지에 대한 분석

조사대상자들의 시간압박감과 주요 이용자료에 대한 관계에서 학술지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전체평균이 4.11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학술지를 이용자료의 유형 중에서 첫 번째로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술지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압박감도 1의 집단과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는 평균이 각각 4.39와 4.56으로 나타나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압박감도 2의 집단과 압

박감도 3의 집단에서는 학술지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평균은 각각 3.85와 4.01로 나타나 전체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받는 시간 압박감에 관계없이 학술잡지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나,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매우 심하게 받을 때는 학술지를 중요시하는 정도가 오히려 낮아져 연구보고서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4. 2. 2. 2 연구보고서에 대한 분석

조사대상자들의 시간압박감과 주요 이용자료에 대한 관계에서 연구보고서의 중요도 인식은 전체평균이 3.96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연구보고서를 이용자료의 유형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보고서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압박감도 1의 집단과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 평균이 각각 3.50과 3.79로 전체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압박감도 3의 집단과 압박감도 4

의 집단에서는 연구보고서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평균은 각각 4.00과 4.63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연구자들은 연구시간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에 관계없이 연구보고서를 다른 자료에 비해 비교적 중요시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매우 심하게 받을 때는 연구보고서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4. 2. 2. 3 단행본에 대한 분석

조사대상자들의 시간압박감과 주요 이용자료에 대한 관계에서 단행본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전체평균이 3.52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단행본을 주요 이용자료의 유형 중에서 세 번째로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행본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압박감도 1의 집단과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 평균이 각각 3.79와 3.69로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압박감도 3의 집단과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는 단행본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평균은 각각 3.36과 3.31로 전체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지 않을수록 단행본을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거의 받지 않을 때는 단행본을 비교적 중요시하지만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을 때는 단행본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4. 2. 2. 4 학위논문에 대한 분석

조사대상자들의 시간압박감과 주요이용자료에 대한 관계에서 학위논문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전체평균이 3.29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학위논문을 주요이용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위논문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압박감도 1의 집단에서 평균이 3.07로 전체평균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압박감도2의 집단과 압박감도 3의 집단에서 학위논문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평균은 모두 3.31로 전체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는 학위논문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평균은 3.38로 전체평균보다 높지만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과 관계없이 학위논문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지만,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을 때는 학위논문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지만 그 차이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4. 2. 3 주요이용자료에 대한 중요도 인식 검증

학술잡지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대한 각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승법을 이용한 검증 결과에서는 검증 통계치 χ^2 값이 23.894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df=12$ 일 때 검증치를 나타내는 유의도가 $p<0.021$ 이므로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

다.

연구보고서의 중요도 인식에 대한 각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자승법을 이용한 검증 결과에서는 검증 통계치 χ^2 값이 37.681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df=12$ 일 때 검증치를 나타내는 유의도가 $p<0.000$ 이므로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단행본의 중요도 인식에 대한 각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자승법을 이용한 검증 결과에서는 검증 통계치 χ^2 값이 21.952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df=12$ 일 때 검증치를 나타내는 유의도가 $p<0.038$ 이므로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학위논문의 중요도 인식에 대한 각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자승법을 이용한 검증 결과에서는 검증 통계치 χ^2 값이 13.348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df=12$ 일 때 검증치를 나타내는 유의도가 $p<0.344$ 이므로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표 5).

4. 3 시간압박감과 정보원의 유형에 대한 분석

4. 3. 1 정보원의 유형에 대한 전체 중요도 인식

조사대상자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과 정보원의 유형에 대한 관계에서 정보원의 유형에 대한 전체 중요도 인식은 기록정보원이 인간정보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1의 집단에 속한 조사대상자들은 기록정보원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인간정보원에 대한 중요도 인식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2의 집단에 속한 조사대상자들은 기록정보원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인간정보원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3의 집단에 속한 조사대상자들은 기록정보원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인간정보원에 대한 중요도 인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4의 집단에 속한 조사대상자들은 기록정보원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표 5> 주요이용자료에 대한 중요도 인식 검증

변인	χ^2 값	자유도 (df)	유의도 (p)
학술지	23.894	12	0.021
연구보고서	37.681	12	0.000
단행본	21.952	12	0.038
학위논문	13.348	12	0.344

〈표 6〉 시간압박감과 정보원의 유형에 대한 중요도 인식

구 분	압박감도1	압박감도2	압박감도3	압박감도4	계
	평 균	평 균	평 균	평 균	평 균
기록정보원	3.82	4.00	4.15	4.56	4.12
인간정보원	4.50	4.10	3.69	3.53	

는데 비해 인간정보원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이것은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심하게 받을수록 기록정보원을 중요하게 여기고, 반면에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지 않을수록 인간정보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4. 3. 2 정보원의 유형별 중요도 인식

4. 3. 2. 1 기록정보원 대한 분석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과 정보원의 유형에 대한 관계에서 기록정보원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전체평균은 4.12로 나타나고 있다. 기록정보원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압박감도 1의 집단과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 평균이 각각 3.82와 4.00으로 전체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압박감도 3의 집단에서 중요도 인식의 평균은 4.15로 전체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 기록정보원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평균은 4.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심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기록정보원을 인간정보원보다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4. 3. 2. 2 인간정보원 대한 분석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과 정보원의 유형에 대한 관계에서 인간정보원은 전체평균이 3.91로 나타나고 있다. 인간정보원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압박감도 1의 집단에서 평균이 4.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압박감도 2의 집단도 평균이 4.10으로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압박감도 3의 집단과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는 인간정보원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평균은 각각 3.69와 3.53으로 전체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앞의 기록정보원과 반대로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지 않을수록 인간정보원을 기록정보원보다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4. 3. 3 정보원의 유형에 대한 중요도인

〈표 7〉 정보원의 유형에 대한 중요도 인식 검증

변 인	χ^2 값	자유도 (df)	유의도 (p)
기록정보원	31.883	9	0.000
인간정보원	32.298	9	0.000

식 검증

기록정보원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각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법을 이용한 검증 결과에서는 검증 통계치 χ^2 값이 31.883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df=9일 때 검증치를 나타내는 유의도가 $p<0.000$ 이므로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인간정보원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각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법을 이용한 검증 결과에서는 검증 통계치 χ^2 값이 32.298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df=9일 때 검증치를 나타내는 유의도가 $p<0.000$ 이므로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표 7〉

5. 연구자의 시간압박감과 정보탐색특성의 관계

5. 1 시간압박감과 자료수집사용시간의 분석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연구상태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의 정도와 자료수집사용시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연구시간의 10% 미만을 자료수집에 사용한다는 응답은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3의 집단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는 연구시간의 10% 미만을 자료수집에 사용한다는 응답은 세 번째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1의 집단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시간의 10-20% 정도를 자료수집에 사용한다는 응답은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3의 집단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는 연구시간의 10-20% 정도를 자료수집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세 번째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1의 집단에서는 이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시간의 20-30% 정도를 자료수집에 사용한다는 응답은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1의 집단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3의 집단에서는 연구시간의 20-30% 정도를 자료수집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세 번째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는 이에 대한 응답이 가장

〈표 8〉 시간압박감과 자료수집사용시간

구 분	압박감도1	압박감도2	압박감도3	압박감도4	평 균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10%미만	3.6	13.1	17.9	31.2	16.5
10-20%	0.0	21.3	43.3	59.4	32.5
20-30%	35.7	36.1	20.9	9.4	26.1
30-40%	35.7	13.1	11.9	0.0	13.8
40% 이상	25.0	16.4	6.0	0.0	11.1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시간의 30-40% 정도를 자료수집에 사용한다는 응답에서는 압박감도 1의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3의 집단에서는 연구시간의 30-40%를 자료수집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세번째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 이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시간의 40% 이상을 자료수집에 사용한다는 응답은 압박감도 1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3의 집단에서는 연구시간의 40% 이상을 자료수집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세 번째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 이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8〉

이것은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을 때는 자료수집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지만,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지 않을 때는 자료수집에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5. 2 시간압박감과 탐색전략수립시간의 분석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연구상태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의 정도와 탐색전략수립시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탐색전략수립에 전혀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1의 집단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3의 집단에서는 탐색전략수립에 전혀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세 번째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는 이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탐색전략수립에 10분 미만을 소비한다는 응답은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1의 집단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압

박감도 3의 집단에서는 탐색전략수립에 10분 미만을 소비한다는 응답이 세 번째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는 이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탐색전략수립에 10-30분을 소비한다는 응답은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3의 집단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는 탐색전략수립에 10-30분을 소비한다는 응답이 세 번째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1의 집단에서는 이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탐색전략수립에 30-60분을 소비한다는 응답은 압박감도 3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1의 집단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는 탐색전략수립에 30-60분을 소비한다는 응답이 세 번째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는 이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탐색전략수립에 60분 이상을 소비한다는 응답은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1의 집단과 압박감도 3의 집단에서는 이에 대한 응답이 서로 비슷하게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는 탐색전략수립에 60분 이상을 소비한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9>

이것은 앞의 자료수집사용시간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시간 압박감을 받을 때는 탐색전략수립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지만, 연구에서 시간 압박감을 받지 않을 때는 탐색전략수립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5. 3 시간압박감과 정보탐색방법의 분석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연구상태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의 정도와 정보탐색방법의

<표 9> 시간압박감과 탐색전략수립시간

구 분	압박감도1	압박감도2	압박감도3	압박감도4	평 균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소비없음	17.9	0.0	2.9	21.8	7.5
10분 미만	25.0	14.8	16.4	37.5	20.7
10-30분	17.9	39.3	34.3	25.0	31.9
30-60분	28.6	27.9	35.8	12.5	28.2
60분 이상	10.7	18.0	10.4	3.1	11.7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정보탐색방법에서 상위주제에서 하위주제로 탐색범위를 좁혀 나가는 방법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압박감도 1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3의 집단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는 상위주제에서 하위주제로 탐색범위를 좁혀 나가는 방법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세 번째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는 이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탐색방법에서 하위주제에서 상위주제로 탐색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법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압박감도 1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3의 집단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2의 집단과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는 하위주제에서 상위주제로 탐색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법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탐색방법에서 해당주제의 정보만을 탐색한다는 응답은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3의 집단과 압박감도 1의 집단에서는 해당주제의 정보만을 탐색한다는 응답이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탐색방법에서 필요한 자료만을 탐색한다는 응답은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3의 집단과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는 필요한 자료만을 탐색한다는 응답이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압박감도 1의 집단에서는 필요한 자료만을 탐색한다는 응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0>

이것은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지 않을 때는 상위주제에서 시작하여 하위주제로 범위를 넓혀 나가는 탐색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연구에서 시간압박

<표 10> 시간압박감과 정보탐색방법

구 분	압박감도1	압박감도2	압박감도3	압박감도4	평 균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탐색방법 1	60.7	40.9	59.7	37.5	48.9
탐색방법 2	21.3	8.2	13.4	6.2	11.7
탐색방법 3	17.8	40.9	19.4	31.2	28.2
탐색방법 4	0.0	9.8	10.4	25.0	11.2

탐색방법 1:상위에서 하위주제로 탐색범위를 좁힘.
탐색방법 3:해당주제의 정보에 대한 탐색을 실시함.

탐색방법 2:하위에서 상위주제로 탐색범위를 넓힘.
탐색방법 4:필요한 자료만을 탐색함.

박감을 받을 때는 필요한 자료만 탐색하는 방법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5. 4 시간압박감과 정보탐색정도의 분석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연구상태에서 받는 시간압박감의 정도와 정보탐색정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정보탐색정도에서 원하는 정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 탐색한다는 응답은 압박감도 1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3의 집단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는 원하는 정보가 나올 때까지 탐색을 계속한다는 응답이 세 번째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는 이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탐색정도에서 원하는 특정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오면 탐색을 중

단한다는 응답은 압박감도 3의 집단과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 각각 거의 비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압박감도 1의 집단에서도 원하는 특정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오면 탐색을 중단한다는 응답이 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는 이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탐색정도에서 1-2회 정도만 탐색을 실시하고 중단한다는 응답은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2의 집단과 압박감도 3의 집단에서는 비슷하게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1의 집단에서는 1-2회 정도만 탐색을 실시하고 중단한다는 응답의 가장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탐색정도에서 3-5회 정도 탐색을 실시하고 중단한다는 응답은 압박감도 4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표 11〉 시간압박감과 정보탐색정도

구 분	압박감도1	압박감도2	압박감도3	압박감도4	평 균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탐색방법 1	46.4	19.7	22.4	12.5	23.4
탐색방법 2	42.9	47.6	47.8	28.1	43.6
탐색방법 3	3.6	14.7	14.9	28.1	15.4
탐색방법 4	7.1	18.0	14.9	31.3	17.6

탐색정도 1:원하는 정보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탐색함. 탐색정도 2:원하는 특정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오면 탐색을 중단함. 탐색정도 3:1-2회만 탐색을 실시하고 중단함. 탐색정도 4:3-5회 정도의 탐색을 실시하고 중단함

압박감도 2의 집단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3의 집단에서는 3-5회 정도 탐색을 실시하고 중단한다는 응답이 세 번째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1의 집단에서는 이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1>

이는 연구자들은 원하는 특정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오면 탐색을 중단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연구에서 시간 압박감을 받지 않는 때는 원하는 정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 탐색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을 때는 3-5회 정도의 일정 회수만 탐색을 실시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5. 5 연구시간압박감과 자료실이용빈도의 분석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연구상태에서 시간압박감의 정도와 자료실이용빈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자료실이용빈도에서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은 압박감도 2의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3의 집단은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1의 집단과 압박감도 4의 집단은 자료실을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실이용빈도에서 주 2-3회 정도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압박감도 3의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1의 집단은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3의 집단은 자료실을 주 2-3회 정도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세 번째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4의 집단은 이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실이용빈도에서 주 1회 정도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압박감도 3의 집단과 압박감도 1의 집단이 비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압박감도 2의 집단은 자료실을 주 1회 정도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세 번째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4의 집단은 이에 대한 응답이 네 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실이용빈도에서 월 2-3회 정도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압박감도 4의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2의 집단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3의 집단과 압박감도의 1의 집단은 자료실을 월 2-3회 정도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실이용빈도에서 월 1회 이하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압박감도 4의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압박감도 1의 집단은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압박감도 3의 집단과 압박감도 4의 집단은 자료실을 월 1회 이하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12>

이것은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심하게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 압박감에 관계없이 자료실을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 12〉 시간압박감과 자료실이용빈도

구 분	압박감도1	압박감도2	압박감도3	압박감도4	평 균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거의매일	10.7	18.0	11.9	9.4	13.3
주 2-3회	39.3	37.7	40.3	28.1	37.2
주 1회	35.7	26.2	35.8	18.8	29.8
월 2-3회	7.1	13.1	7.5	31.2	13.3
월 1회 이하	7.1	4.9	4.5	12.5	6.4

것이다.

5. 6 연구자의 정보탐색특성에 대한 검증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과 자료수집사용시간의 관계에 대한 각 집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카이제곱법을 이용한 검증 결과에서 검증 통계치 χ^2 값이 61.804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df=12$ 일 때 검증치를 나타내는 유의도가 $p<0.000$ 이므로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과 탐색전략수립시간의 관계에 대한 각 집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카이제곱법을 이용한 검증 결과에서 검증 통계치 χ^2 값이 37.376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df=12$ 일 때 검증치를 나타내는 유의도가 $p<0.000$ 이므로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과 정보탐색방법의 관계에 대한 각 집단

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카이제곱법을 이용한 검증 결과에서 검증 통계치 χ^2 값이 22.433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df=9$ 일 때 검증치를 나타내는 유의도가 $p<0.008$ 이므로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과 정보탐색정도의 관계에 대한 각 집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카이제곱법을 이용한 검증 결과에서 검증 통계치 χ^2 값이 21.950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df=9$ 일 때 검증치를 나타내는 유의도가 $p<0.009$ 이므로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받는 시간압박감과 자료실이용빈도의 관계에 대한 각 집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카이제곱법을 이용한 검증 결과에서 검증 통계치 χ^2 값이 18.024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df=12$ 일 때 검증치를 나타내는 유의도가 $p<0.115$ 이므로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표 13〉 연구자의 정보탐색특성에 대한 검증

변 인	χ^2 값	자유도 (df)	유의도 (p)
자료수집사용시간	61.804	12	0.000
탐색전략수립시간	37.376	12	0.000
정보탐색방법	22.433	9	0.008
정보탐색정도	21.950	9	0.009
자료실이용빈도	18.024	12	0.115

표 13〉

6. 결 론

연구자들이 그들의 연구에서 받는 시간 압박감의 정도에 따라 정보탐색행태를 나타내는 정보추구인식과 정보탐색특성에 대한 차이를 밝혀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지 않을 때는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 중에서 재현성과 다양성을 비교적 중요시하고, 반대로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을 때는 정확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2. 연구자들은 주요 이용자료 중에서 학술지를 가장 중요시하지만,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지 않을수록 단행본을 중요시하고, 반대로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심하게 받을수록 연구보고서를 중요시하고 있다.
3.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심하게 받을수록 기록정보원을 중요시하고, 반대로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지 않을수록 인간정보원을 중요시하고 있다.

4.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자료수집에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5.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탐색전략 수립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6.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지 않을 때는 상위주제에서 시작하여 하위주제로 범위를 넓히는 탐색방법을 많이 이용하는데 비해,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을 때는 필요한 자료만 탐색하는 방법을 상대적으로 많이 채택한다.
7. 연구자들은 원하는 특정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오면 탐색을 중단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 연구에서 시간압박감을 받지 않을 때는 원하는 정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 탐색

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연구에서 시간 압박감을 받을 때는 3-5회 정도의 일

정회수만 탐색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문헌

- 김 태 승. 과학기술정보봉사의 비이용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1.
- 노 정 순. "우리 나라 온라인 탐색환경과 탐색자의 탐색행위에 관한 연구." 도서관 43:9 (1988) : 33-61.
- 이 근 봉. 탐색자의 주제배경이 데이터베이스의 탐색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1994.
- 이 은 철. 研究者의 情報接近 沮害要素 分析.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1.
- 이 응 봉. 데이터베이스 온라인검색봉사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1.
- 장 혜 란.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의 탐색행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1.
- 최 상 기. 과학기술분야 온라인 탐색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평가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93.
- Adams, Judith A. and Bonk, Sharon C. " Electronic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Resource : Use by University Faculty and Faculty Preference for Related Library Servic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6:2 (1995) : 116-131.
- Bradford, S. C. Documentation. London : Crosby Lockwood, 1953, p.200.
- Bourne, C. P. "A Review of the Methodology of Information System Design." Information System Workshop : the Designer's Responsibility and his Methodology. Washington D. C. : Spartan Books, 1962, pp. 11-35.
- Chen, Chingchin."How do Scientists Meet Their Information Needs?" Special Libraries 65: 7(1974) : 272-280.
- De Solla Price, Derek J. "Collaboration in an Invisible College." American Psychologist 21 (1964) : 1011-1018.
- Ellis, D., Cox, D. and Hall, K. "A Comparison of the Information

- Seeking Patterns of Researchers in Physical and Social Sciences." *Journal of Documentation* 49:4 (1993) : 356-359.
- Ensor, Pat. "User Characteristics of Keyword Searching in an OPAC."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3:1 (1992) : 72-80.
- Fidel, R. and Soergel, D. "Factors Affecting Online Bibliographic Retrieval : A Conceptual Framework for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4:3 (1983) : 163-180.
- George D'Elia and Sandra Walsh, "User Satisfaction with Library Service : A Measure of Public Library Permanence ?" *Library Quarterly* 53:2 (1983) : 109-133.
- Haag, D. E. "Barriers Limiting the Usefulness of Published Information in the Research Environment." *Special Libraries* 75 (1985) : 214-220.
- Hilchy, Susan E. and Hurych, Jitka M. "User Satisfaction or User Acceptance ? : Statical Evaluation of an Online Reference Service." *RQ* 24:4 (1985) : 452-459.
- Knapp, Sara D. and Atkinson, Steven D. "A Model for an Expanded Online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 in on Academic Library." *Proceedings of 43th ASIS Annual Meeting (1980)* : 48-50.
- Line, M. B. "Information Requirements in the Social Science : Some Preliminary Considerations." *Journal of Lirarianship* 1:1 (1969) : 1-19.
- Lotka, Alfred J. "The Frequence Distribution of Science Productivity." *Journal of the Washington Academy Sciences* 16 (1926) : 317-326.
- Lucas, Thomas A. "Time Patterns in Remote OPAC Us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4:5 (1993) : 439-445.
- Merton, Robert K. *The Sociology of Science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s*.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3.
- Paster, A. and Osif, B. "Great Expectations Satisfying today' s Patrons." *Special Libraries* 83:4 (1992) : 195-198.
- Summers, Edward G. Matheson, Joyce and Conry, Robert "The Effect of Personal, Professional, and Psychological

Attribute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Use of Information Sources by Educator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4:1 (1983) : 75-85.

Tagliacozzo, Renata. "The Consumers

of New Information Technology : A survey of the Utilization of MEDLIN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6:5 (1975) : 294-304.